11 하나님을 경외한 욥

욥기 1장 1절 ~ 2장 10절, 42장

욥은 이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정직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열 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욥처럼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이유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물과 자녀를 빼앗는다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재산을 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그의 몸은 해치지 마라."

하루는 욥에게 한 종이 와서 말하였습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들에 있는 나귀와 소를 빼앗아 가버렸어요."

성경암송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야고보서 5:11)

그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욥에게 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갑자기 오더니, [1]약대를 빼앗아 갔습니다."

아직 말할 때에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쳐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욥은 하루 동안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게 된 것입니다.
욥은 너무나 슬펐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았느냐? 욥은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켰느니라."

[1] 약대: 낙타

"그것은 욥의 몸이 아직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욥을 병들게 한다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을 네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노라.
하지만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마라."

이번에는 욥의 머리부터 발 끝까지 온 몸에 [1]악창이 났습니다.
욥은 너무나 가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믿음을 지킬 건가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당신의 말이 정말 어리석구려. 하나님께서는 복도, 재앙도 다 주시는 분이시라오."

욥은 이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한 욥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욥은 다시 건강해졌고 재산도 그전보다 두 배나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열 명의 자녀를 다시 얻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1] 악창: 피부가 벌겋게 부으면서 아프고 가려우며 곪아 터진 다음에 잘 낫지 않은 것.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어느 날 닥친 고난은 무엇이었나요?
자세히 적어 보세요.

여러분이 욥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모두 찾아 보세요. ( )

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죄를 지어서
② 욥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기 위해서
③ 욥에게 너무 많은 재물과 자녀를 주신 것을 후회해서
④ 욥에게 후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십니다. 비록 고난받을 때는 힘들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 하신 후에는 내가 ▢▢ 같이 나오리라 (욥기 23:10)

다음은 신약성경에 기록된 욥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야고보서 5:11)

여러분이 들은 욥의 인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참으면서 욥이 한 말을 읽고, 욥이 어떻게 인내하였는지 적어 보세요.)

여러분이 본 욥의 결말은 무엇이었나요? (욥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 배나 축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힘들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요즈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잘 참기 힘든 것이 있나요?
무엇인지 솔직하게 적어 보세요.

한 친구가 자꾸만
제가 키가 작다고
놀려서 너무나
화가 나요.

요즘 들어 아버지께서 교회를
못 가게 하세요.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화를 내셔서 너무 힘들어요.

나

여러분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혜린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려요.

종한

전 솔직히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을 하고 화를 낼
때가 많아요.

나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는 작은 어려움도 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참고 어려운 일에 대해 꾸준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욥이 참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잘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지금 _____

것이 너무 힘들지만, 내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_____

_____

_____

해 주실 거야!

예 화

예수님의 고난

힌두교를 믿는 한 여인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고난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받으신 고난과 비교할 만큼의 고난은 결코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의 고백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고난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란

선생님란